

사설

수재민과 아픔을 함께

망연자실. 태풍 '매미'로 인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심경이 바로 이렇 것이다. 위로의 말을 고르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이달 말까지 호우가 계속된다고 하니 상처를 돌보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만신창이가 된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낚시꾼들이 때로 물러 양식 물고기를 낚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의 한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저 모습 또한 타인의 아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기 침체와 실업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버려도 좋을 변경거리일 수는 없다.

베를 것이 없다면 측은지심이라도 가져야 한다. '소외와 절망'이라는 제2의 태풍을 안겨 줘서는 안 된다. 그것에 의한 상처는 영원히 치유불능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최고 실천 덕목은 육바라밀이다. 그중 '보시'는 으뜸이다. 하지만 자비행이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시와 지계, 인욕과 정진은 자비행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지혜와 결합할 때 깨달음의 꽃이 피는 것이다. 불자라면 마땅히 일거수일투족이 자비와 지혜에 놓여야 한다.

거듭되는 재난에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수재민들에게 '소외와 절망'이라는 제2의 태풍을 맞게 해서는 안 된다.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것, 연대의 방과제를 세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성전문인력 네트워크형성 환영

불교여성개발원이 17일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위한 여성 불자 108인'을 선정, 그 명단을 발표했다. 앞으로 여성복지와 교육 등 다양한 불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이룰 교계 리더 그룹의 탄탄한 조직망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우선 반가움을 표하고 싶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버팀목으로 여성 불자들의 신심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그동안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 교계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자칫 기복위주의 신앙으로 흐른다는 비판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108인 전문인력 그룹'이 앞으로 교계 안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신해행증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리라 기대하고 싶다.

이번에 조직된 네트워크를 보면 그동안 여성의 꾸준한 사회진출로 전문

분야의 다양성이 돋보일 뿐더러 이를 묶는 네트워크가 잘 작동만 하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 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네트워크'란 '홀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 즉 제법무아를 근거로 세계를 하나의 큰 그물망으로 인식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은 단어들이며 세계는 지금 그 '인드라의 그물망'에 대한 깨우침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물망에 대한 깨우침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108인 네트워크' 역시 조직만으로는 교계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정체되는 조직이 아닌, 네트 안에 긍정적이며 올바른 흐름이 있게 하는 진정한 힘과 실행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수신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청소년지도사 양성 '발등의 불'



**'청소년 법안' 통과 대비...포교대체 시급
교계단체, 종립대에 관련학과 증설 요청**

불교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이 시급하다. 청소년 시설·단체 및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의무 채용과 정부 차원의 청소년지도사 활동·생활비 보장, 청소년활동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청소년기본법개정 및 청소년관련법제정안이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소홀히 해온 교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각 단체와 학교 등에 청소년지도사가 의

무적으로 채용되며, 단체·학교 단위의 포교활동이 청소년지도사의 지도하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입시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청소년활동인증제가 사찰수련회 및 각종 불교문화·체험행사에 적용됨으로써 종교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 소속 전국 청소년단체에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하는 8,573명의 청소년지도사 중 불교계 청소년지도사는

1.2%에 불과한 100여명이며, 이들 중 70여명만이 청소년단체와 종단, 사찰 등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1년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관련단체 및 행사주체들에게 청소년 수에 비례하는 전문 지도자를 배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불교계는 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물론, 행사배치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을 무시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와 조계종 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원택),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욱),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가 9월 9일 등교대, 승가대, 위덕대에 청소년관련학과 증설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불교계 대학 내 청소년학과 신설에 발 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성 스님은 "불교계도 학과설치는 물론, 청소년 및 신도단체에 관련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동국학원 재가이사추천 논란

동국대 총동창회 "종관위가 정관위배"

11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동국학원 재가 이사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이사는 법장·고산·성오·현성·녹원 스님 등 스님 이사 5명과 홍기삼·서문각·류주형 등 재가 이사 3명이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 원택, 이하 종관위는 9월 13일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님 10명과 재가자 6명을 학교법인 동국학원 신임 이사 후보로 복수 선출했다. 후보 한 명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 곧 명단에서 삭제됐다. 이들은 23일 개원하는 제160회 임시 중앙총회의 동의를 받아 동국학원 이사회에 추천된다.

그러나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류주형)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국학원 이사 정원 13명 중 9명

의 스님 이사에 대한 추천권만 있는 종관위가 나머지 재가 이사까지 추천한 행위는 (이를 규정한) 동국학원 정관 제24조에 위배된 불법행위이며 1973년 이후 30년 동안 총동창회가 재가 이사 3인을 추천해 오던 관행을 깨고 동국학원 이사 전원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회 사무처 측은 "동국학원 정관에도 재가 이사의 선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종단에서 설립한 종립대학교이고, 출·재가 구분 없이 중앙총회 동의를 얻어 이사 후보를 복수 추천하게 돼 있는 종법(종립학교관리법)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스리랑카 사찰

영부인초청 청와대오찬

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양숙 여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운이 융성할 수 있도록 스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개혁은 지속적으로 하되,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24일 권 여사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영우 기자**

으로 출마한 철안스님(사진)을 만장일치로 새 주지에 추대했다. 철안스님은 월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법어사에서 교안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9년 망월사에서 수선언거한 이래 21하안거를 성만했으며, 1989년부터 남양주 봉영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조계종 법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한영우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스리랑카 사찰

민간 불교관광교류사업 추진

스리랑카가 한-스리랑카 불교 교류 차원에서 조계종 24개 교구본사와 스리랑카 사찰들 간의 민간 관광교류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방한한 스리랑카 가마게(Lal D. Gamage) 의무부 부장관은 9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초청 오찬에서 이 같이 밝히고, 15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마게 부장관은 "한국과 스리랑카는 1987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경제, 무역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양국

이 불교 형제국가로서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관광산업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혁 기자

봉선사 19일 산중총회
새주지 철안스님 추대

조계종 제15 교구본사 봉선사는 9월 19일 경내 청풍루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단독

38호 6면 '각사찰내 납골시설 건립...' 기사의 제목과 내용 중 '대승종'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통도사 창건 제1358주년 개산대제

646년 신라 대국통이자 겨례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자장율사에 의하여 창간된 통도사는 천년의 佛香을 머금음 삼보중찰로서 면면히 불지증가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역대조사의 회호와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통도사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음력 9월 9일 중앙지절을 맞이하여 자장스님의 연고재를 봉행함으로써 그 높은 덕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창사정신을 길이 전승하고 역대 큰스님들의 고매한 뜻을 잇고자 하는 공양의식과 다채로운 법회로 짜여진 개산대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산 1358주년 기념 행사 일정표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주 부 서	
2003년 10월 3일 (음 9. 8) 금요일	09:00	도예전시, 서예전시, 꽃꽂이, 사진전 (10. 3 - 10. 4까지)	이노전 중노전	포교국	
	10:00	개산대제 및 영축사장대외 입재식	설법전	교무국	
	13:00	개산 1358주년 기념 제5회 부도원단체	부도전	포교국	
	14:00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대웅전	호법국 박물관	
	19:00	점등식	대웅전 앞	교무국 재무국	
2003년 10월 4일 (음 9. 9) 토요일	08:00	패불연패	대웅전→패불대	박물관	
	09:00	불공의식	설법전	교무국	
	10:30	개산대제 법요식	설법전	교무국	
	11:00	부처님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대웅전	호법국 박물관	
	11:30	재흥잔치	설법전	사회국	
	11:40	패불 헌공	상노전 패불대	박물관	
	01:30	개산대제 기념 합창제	설법전	포교국	
	13:00	1358주년 개산대제 제 10회 진주 청곡사 패불행 특별전	중영패불전	박물관	
			지역노인 경로당 위문		총무국 사회국

● 입재식 : 2003년 10월 3일(금) 10:00(음 9. 8)
 ● 법요식 : 2003년 10월 4일(토) 10:30(음 9. 9)
 ● 장 소 : 설 법 전
 ● 문의처 : 총무소 전화 (055)382-7182~7
 전 송 (055)382-7196
 www.fongdosa.or.kr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합장